

단합으로 불황극복을

소 를 기르시면서 고충이 많은 농가 여러 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가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묘안이 없기에 중의를 모아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많은 농가의 요청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여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오셨으므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고 계시는 면도 없지않을 것으로 여겨져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 등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먼저, 소 사육두수가 너무 많습니다. 3백만두가 넘어섰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국토는 좁고 이용성이 낮은데다 사육두수가 갑자기 증가하여 조사료 대책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세째는 사양기술과 경영이 불합리하다는 점입니다.

네째는 경기침체로 인해 우유와 육류소비가 과거에 비해 최근에 와서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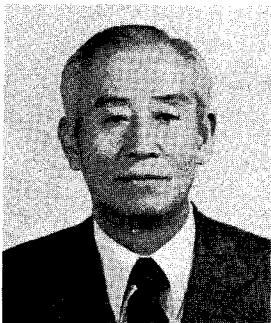
이러한 요인들이 불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면대책

작년 연말부터 정부나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육류·유가공품의 수입을 중지 또는 억제하고 분유나 소, 부분육을 수출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확대책으로 도살연령·성을 폐지하고 자가소비 도살제한의 완화와 지방육 서울반입 허용, 쇠고기 부위별 포장육 판매와 연동가격제를 실시하고 있고, 우유 포장단위의 국제규격화를 실시하며 학교급식 및 군 우유급식의 확대, 유제품특소세 면제 추진, 유사유제품의 생산억제등을 실시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 윤 수

본회 회장

· 우리나라에서도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성력화를 위해 5~7년 정도의 계획으로 국제적인 현실에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입식용자금 및 이자납기 연장, 6월 1일부터 밀기울 등 강피사료의 수입자유화 실시와 판매제한 폐지, 그리고 일부에서 원유 집유거부 현상에 대해 원유를 집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합사료 가격인하를 촉구하고 도입우에 대한 금리의 면제를 건의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하면 조사료 생산·이용이 저조하여 배합사료에 더 치우치는 축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사료값이 내릴수록 사료효율이 높은 닭·돼지고기는 증산되고 가격이 싸지는 반면 소는 가격이 내리지 않게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배합사료의 부가금을 받아 양축농가보호 정책에 재사용하자는 의견이 정책담당자나 객관적인 의견 제시자들의 중론입니다.

도입우에 대한 금리 탕감문제는 입식농가들의 대다수가 소를 전매했거나 도살시킨 상태이고 일부농가만 기르고 있는 형편인데,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값이 치솟을 때 팔아서 이익을 본 사람들과 현재까지 사육중인 농가와와 구분도 어렵거니와 전체농가에 대한 보상제도는 문제점도 없지않아 원리금·이자 상환연기 방법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 사육농가 여러분의 경영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불황을 경영개선만으로 해결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소를 기르는 농가라면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합사료 급여량의 감축과 조사료 급여 확대, 보조사료의 합리적 급여, 경영규모의 합리화와 성력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규모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20년 전에는 현재 우리의 경영규모보다 적은 호당 평균사육두수가 7~8두로서 약 37만 호가 있었으나 작년말에는 8만 2천호로, 농가수가 줄어든 반면 호당 24두가 평균사육 두수로

나타났고 작년 한 해의 경영상태 변화를 보면 20두 이하 규모의 농가수가 7~8% 줄어드는데 비해 20두 이상 규모의 농가는 2~3%정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2백 4십만 농가중에서 소농이 60%인데 이중 30%에 해당하는 농가는 세금도 제대로 못내고 도산위기에 있어 땅값이 하락하고 농촌도시까지 불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와는 여건이 다르지만 30~40정보를 경작하는 농가는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고 백정보 농가에 해당되면 6~9%의 소득이 있으며 5백정보의 대농이 19%를, 2천정보의 기업농은 60%의 소득을 올린다는 통계를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성력화, 기계화를 위해 5~7년 정도의 계획으로 국제적인 현실에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저능력우의 과감한 도태와 산유능력 및 산육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불황에 관계없이 개선하도록 해야 하며 대응우로 기르는 것보다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다함께 불황을 극복하고 송아지를 튼튼히 기르는 방법으로 모유로 키우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불황이 그치고 나면 해결해야 될 과제로는 집유제도의 개선과 검사제도의 개선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생산장려를 위해서는 「생산비 기준가격 지지제」와 같은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안심하고 소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축가의 총본산인 축협중앙회에서 원유수급조절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원유가 남아돌 때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대책추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는 정부의 시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농가들이 단합과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이상의 말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